2021년도 제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11. 9(화) 14:00

▣ 장 소 : 대구청사 회의실

▣ 출석위원 : 11명

• 위 원 : 석대권(위원장), 김무진, 류춘규, 서석민, 양승경, 윤용현, 정복상, 정현숙, 주영위 위원 / 장영수 조사위원, 정서은 전문위원

▣ 심의안건

○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 상주옹기장(정대희)

○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심의

• 숭덕전제례(신라오릉보존회)

○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 선정 심의

• 가야금병창(주영희, 임종복)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심의내용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상주옹기장]

가. 신청내용

(1) 신청자 : 정대희

(2) 문화재명 : 상주옹기장

(3) 전승지 : 상주시 이안면

나. 조사자 및 검토자 : 도 문화재 (전문)위원 3명

다. 의결사항 : 가결

라. 심의내용 :

상주옹기장 정대희는 20대부터 아버지인 기능보유자 고(故) 정학봉(1930-2018) 밑에서 가업을 전승받아 40여년 이상 옹기업에 종사하면서 제작방식, 과정 등에서 전통방식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승의지도 강하다.
옹기 전반에 대한 이해력과 전통 옹기 장인으로서의 긍지, 전통 계승에 대한 사명감 등이 매우 높다. 옹기제작 기능에 대한 전승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아들과 딸이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 옹기 제작 과정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또한, 상주 지역의 전통 옹기 제작 기법을 충실히 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징도 잘 지니고 있다. 현재 상주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옹기를 생산하는 곳은 이곳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정대희를 상주옹기장 보유자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대희는 전통적인 옹기제작 기능과 전승환경을 충분히 갖추었고, 전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현재 공석인 상주옹기장 보유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5-다호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한다.

2. 도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심의[숭덕전제례]

가. 신청내용

(1) 신청자 : 신라오릉보존회

(2) 문화재명 : 숭덕전제례

(3) 전승지 : 경주시 탑동

나. 조사자 및 검토자 : 도 문화재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 4명

다. 의결사항 : 보류

라. 심의내용 :

숭덕전은 1429년 건립되었고, 1723년 '숭덕전'으로 사액된다. 이에 숭덕전을 관리하는 후손 2인을 참봉으로 차출하고, 국가제사로 권위가 높아졌다. 이러한 국가주도제사는 대체로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밀양박씨 종친회 중심으로 거행되었고, 경주군수가 헌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밀양박씨는 1945년 대종친회를 창립하고, 1959년 사단법인 '신라오릉보존회'가 창립인가를 받아 전국의 모든 박씨 종친회를 흡수·통합하였다.

숭덕전도 '신라오릉보존회'에서 관리하며, 제사도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보존회에서는 1972년 춘추(春秋)로 지내는 제사를 봄에는 숭덕전에서 가을에는 10왕릉에서 지내기로 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숭덕전 제례는 1972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다. 숭덕전의 제사의 과정이 큰 틀에서는 조선시대 국가 제례로 행하던 곳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례의 과정에서 정리되어야만 할 것들이 있어 보인다.

먼저 제사가 홀기에 따라 진행되는 동안 각 집사들이 참례자 수칙이라 것을 숙지하지만, 매년 다른 집사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져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보인다, 제례운영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는 '숭덕전'이, 운영과 향사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은 '숭덕전운영자문위원회', '전례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기구가 기능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그간 2014년부터 몇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심화하고, 종합적인 『숭덕전 제례연구』 등을 준비하여 숭덕전 제례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례 준행 현장에서는 제례 참예자 및 운영 관련자들이 본 제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이해를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제례에 관한 간략히 정리된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의 단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제례악 사용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중사 때의 음악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친사(親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숭덕전 제례연구』에서는 제례악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조선시기 견관치제하는 다른 제사의 경우 음악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창홀(홀기를 읽는 사람)이 노래한 듯 높낮이가 있어야 하나 지나치게 밋밋하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제례를 거행하는데 복식은 경건한 의례를 표시하는 직접적인 표시이다. 제례복식은 성복(成服)을 한다고 하여 경건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복식이고 이는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숭덕전 제례의식에 착용했던 복식을 관찰한 결과 제례의식에 맞지 않는 복식을 착용하기도 했고 또 시대를 가름할 수 없는 복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즉, 조선 중기와 후기 또 말기의 복식을 혼용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례복식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식에 착용하는 복식인데 그 의미에 맞지 않게 현대의 편한 복장을 착용하기도 했다. 이는 제례의식을 경하게 여긴 표현이라고 생각되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넷째로 행사 주관하는 진행자들의 제례 음식 등의 전승 보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제례 예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전통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끝으로, 보존회에서는 숭덕전 제례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조사에서 조사위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제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선행한 다음에 재조사를 통해 추후 심의키로 하여 보류를 결정한다.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대상 선정심의[가야금병창]

가. 신청내용

(1) 신청자

- 주영희(경주시 충효녹지길)
- 임종복(포항시 북구 삼호로)

(2) 문화재명 : 가야금병창

나. 조사자 및 검토자 : 도 문화재 (전문)위원 4명

다. 의결사항 : 부결

라. 심의내용 :

- 주영희

주영희(1960년생)는 경북 경주시 출생으로 1973년부터 경주시립국악원에서 고 장월중선 선생에게 판소리,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등을 전수받았다. 1976년 국악원 졸업과 동시에 장월중선 선생에게서 가야금병창을 개인 사사 받았으며, 이는 1997년 장월중선의 타계 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주영희 본인의 전승 기록에 의하면, 1976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가야금병창용 남도민요곡을 중심으로 학습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 무렵까지는 <백구가>, <사랑가>, <토끼화상> 등 판소리 공력이 요구되는 곡들과 장월중선 작곡의 <신라고도가>를 전수받았다. 1990년대 무렵부터는 가야금병창 심청가와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학습하였으며, 이 시기에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가야금병창 보유 곡목으로 조사된 내용들과 지정 이후 추가된 악곡들을 사사받았다고 한다. 1994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어 2021년 현재까지 보유자 부재중에도 종목의 전승에 힘쓰고 있으며, 공연 및 대외 활동과 이수자와 장학생을 길러내는 등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수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심사 당일 주영희는 단가 <백발가>와 심청가 중 <범피중류>, 수궁가 중 <토끼화상> 등을 연주하였다. 단가 <백발가>에서 무난하게 목을 풀고 본격적인 가야금병창 전승곡 연주에 들어갔으나 전반적인 발성과 시김새 표현이 능숙하지 못하고 가야금반주 실력 또한 섬세하지 못하였다.

부분적으로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사설 전달이 되지 않거나 가야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심사를 통해 이전 실태조사에서 매번 지적되었던 소리 및 연주 실력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발표회 개최를 추천했던 부분도 실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영희는 고 장월중선 선생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가야금병창을 전수받았다. 장월중선 선생의 다양한 예술세계를 지근거리에서 전수받았기 때문에 스승의 예술을 깊고 다양하게 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 주영희의 가야금병창 실력은 발성 및 시김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능숙하지 못하고 소리와 가야금반주 실력 또한 세부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오랜 기간 전수교육조교로 보존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며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 전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되나 앞으로 그에 맞는 연주 실력 또한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형문화재 인정대상 선정 심의는 부결로 결정한다.

- 임종복

임종복(1959년생)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광주시립국악원에 등록하여 한애순, 한재옥, 선영숙 등 당대 유명 스승들께 판소리, 무용,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을 사사받았다. 1983년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인 포항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평소 가야금에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 광주에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던 고 강형구선생의 소개로 1991년 장월중선 선생 문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1년부터 장월중선 선생이 타계하는 1998년까지 정식으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을 사사받게 된다. 1993년 장월중선의 가야금병창이 도무형문화재가 되면서 1994년 전수장학생을 거쳐 1999년에는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후에는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주요 지역은 주거주지인 포항지역이며, 경주지역에서도 전수교육 및 일반 강습 등 일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심사 당일 임종복은 단가 <백발가>와 심청가 중 <범피중류>, 심청가 중 <천지신명>을 연주하였다. 전반적으로 발음이나 발성 등 소리와 관련된 기본기는 갖추고 있으며 소리와 사설 전달도 무난하다. 그러나 상청의 소리를 구사함에 있어 발성에 답답함이 있거나 음정이 불안하였고, 이와 함께 가야금 반주의 선율 일부가 생략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야금병창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소리뿐 아니라 가야금 연주에도 능숙한 실력과 섬세한 표현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면은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파악되었다.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 개인 인터뷰에서도 임종복은 본인의 단점으로 가야금실력의 부족인 인정한 바, 앞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수교육조교 임종복은 고 장월중선 선생에게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가야금병창을 전수받았으며, 스승의 작고 이후부터는 녹음된 음원 및 장월중선의 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자녀인 정순임의 소리를 배워가며 그 공백을 채우려 노력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년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을 주제로 개인발표회를 여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어서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을 전승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상청에서의 발성과 표현법 및 가야금반주의 실력 향상이 요구되어, 무형문화재 인정대상 선정 심의는 부결로 결정한다.